

2014 AAAAI 학회를 다녀와서

2014년 AAAAI는 San Diego에서 2/27~3/5 동안 열렸습니다. AAAAI 학회는 2013년 San Antonio를 처음으로 두번째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내내 온화하고 강우량이 적은 날씨, 언제든지 방문해서 관광하기에 좋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선선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연평균기온 13~20°C의 쾌적한 기후 때문에 미국 굴지의 관광지, 휴양도시로 알려져 있다' 샌디에고 검색시 나타나는 기분 좋은 설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겨울을 보내다보니 따뜻한 날씨가 그리운 터였는데, 이번 일정 동안에 계속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며 가을 옷으로 짐을 꾸리면서 '학회는 항상 추워. 학회장 안은 더 추웠지...' 기억을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쾌청한 날씨를 기대하였습니다. LA에서 환승을 하였는데, 내리는 순간 맑은 하늘과 더운 공기에 '아 진짜.. 미국에 왔구나. 샌디에고는 더 멀이니까 따뜻하겠지?' 기대하며 1시간 남짓의 비행 뒤 샌디에고에 도착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에 몸이 움추러들며, '역시 학회는 춥구나' 하며 숙소를 향했습니다.

학회가 열리는 convention center 는 샌디에고 bay 를 배경으로 하여 매우 큰 규모였는데, 마침 'the world's largest pathology meeting 103rd USCAP annual meeting' 이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회장에서 길 건너 숙소가 위치하였고, 숙소 바로 뒤편 샌디에고 야구 구장(PETCO stadium) 이 있었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 아쉽게도 바깥만 구경하였습니다. 도착 다음 날 아침 일찍 등록을 마치고 가방을 받는 순간.. 'Oh my god !' 가방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날씨라도 좋으면 요트 모양의 가방에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winter storm 으로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이 날아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날씨에 요트모양의 가방은 전혀 위안이 되지 못했는데, 다음날 검은색의 커다랗기만 한 병리학회 가방을 보며 '그래도 우리 가방이 낫다' 하시던 선생님들 모습이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 시작을 알리는 plenary session은 첫날 'Immunotherapy: Mechanism, Outcomes and Markers', 둘째날 'Integrated Airways', 셋째날 'Drug allergy in the 21st century' 마지막 날 'Bioaerosols: When not to take a deep breath at work'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으며 매우 재밌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Immunotherapy session 에서는 미국에서도 SLIT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review 하였으며, food allergy에 대한 oral immunotherapy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sthma 는 endotype이 더욱 다양하게 구분되어, 앞으로 다양한 mechanism, biomarker, 이에 대한 치료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학회에 갈 때마다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molecular mechanism, immune response 는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평소에 공부를 더 해서 다음 학회에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Urticaria & angioedema session에서는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있어, 바닥에 앉아 자유로이 강의 듣는 모습을 보며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 자유로이 공부하는 그 모습이구나.. 하며 감탄하며 저도 그 속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자리가 있었으나 굳이 저도 바닥에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학회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balboa park에 들렀습니다. 주말이지만 날씨가 좋

지 못해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여유롭게 산책하며 오랜만에 걷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여러 테마의 정원들과 이쁜 건물을 구경하며 즐거운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원 안에 다양한 박물관, 전시관 등이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드디어 비가 그치는구나 했습니다. 샌디에고 날씨를 조금이나마 느끼며, 샌디에고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sea world를 향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여서 관람객이 적어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씨월드는 범고래쇼 '샤무쇼'가 매우 유명하다고 하여, 가자마자 쇼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일이라 하루 1회 공연이었고, 도착 30분 뒤인 1시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곳으로 향하길래 저도 무작정 따라 갔습니다. '샤무쇼' 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조련사와 같이 헤엄치면서 물속에서 조련사와 함께 하는 공연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가 하늘을 날며 점프하고, 물구나무서서 꼬리로 관객들에게 물장구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펭귄, 거대한 거북,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기한 물고기 구경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쩍 젖으며 놀이기구도 타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며 학회를 마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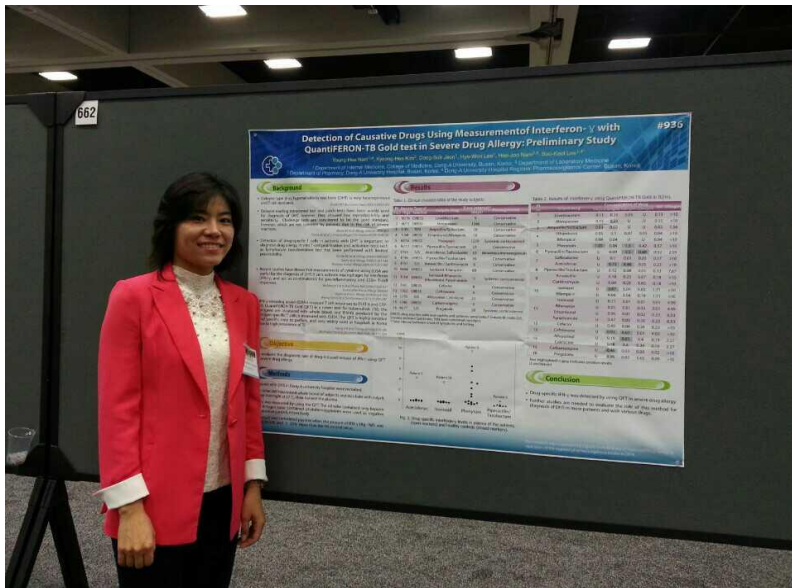
한국 오는 날. 7시 50분 seattle 경유하는 일정이라 새벽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권제시 하는 순간.. Nam? 저를 부르면서 한국으로 가는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e-ticket을 제시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정이 취소되었으니 발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항공사에 알아보니 일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니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현지에서는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seattle 가는 항공권만이라도 구입하여 seattle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만석이 아니라, 한국 선생님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Seattle에서 한국까지 오는 일정에는 이상없이 잘 올 수 있었지만, 새벽부터 놀라면서 함께 걱정 해주시던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경험을 하며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15년은 2/20~24 Houston에서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느낀 소중한 경험으로 열심히 생활하여, 다음 학회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 년 AAAAI 학회 가방



학회장 뒤 san diego bay. 다리 건너 Colorado 가 보임



포스터 앞에서



Sea World 의 샤무이 쇼



Balboa park